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남북한은 수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60여년 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역사는 각각

상이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이러한 이질성은 남북간 화해와 공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이질화된 역사인식은 문화의 이질화, 가치관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여 하나의 역사를 창출하는 과업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통합의 긴 여정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집필 : 전미영(정치학 박사, 동국대 북한연구소)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의미와 문제의식을 공유해 나가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통일·북한문제와 관련된 쟁점이나 다양한 소재를 인터넷에서 공모하여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시리즈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의 일곱 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남북한의 역사인식이 어떻게 다르고 그 이질성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남북 역사학의 교류 동향과 통합된 역사학의 수립을 위한 과제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자가 남과 북이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CONTENTS

07

I. 시작하는 말

11

II. 북한 역사관의 특징

1. 사회주의체제의 역사관 : 유물사관 _ 12
2. 북한 역사인식의 변화 : 유물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_ 14

19

III.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와 주요 쟁점

1. 남북한의 역사관 비교 _ 20
2. 남북한의 우리 역사 시대구분 _ 24
3. 남북한 역사 해석의 주요 쟁점 _ 29
 - 1) 민족정통성의 문제 _ 29
 - 2) '민족' · '민족주의' 개념의 문제 _ 34
 - 3)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 _ 38
 - 4)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평가 _ 44

49

IV. 남북 역사학 교류와 통일역사교육의 문제

1. 남북한 역사학의 교류 _ 50
2. 통일역사교육의 과제 _ 53

59

V. 하나의 역사를 위한 노력

깊이 보기

- 깊이 보기① : 유물사관의 역사발전 5단계 _ 13
- 깊이 보기② : 북한의 역사학 연구동향 _ 17
- 깊이 보기③ : 타도제국주의동맹 _ 28
- 깊이 보기④ : 대동강문화론 _ 33
- 깊이 보기⑤ : 사회주의헌법 _ 34
- 깊이 보기⑥ : 조선민족제일주의 _ 38

사례 읽기

- 사례 읽기① : 남북한 역사교과서 ‘머리말’ 비교 _ 23
- 사례 읽기② : 북한의 왕조사 해석 _ 30
- 사례 읽기③ : 단군신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 _ 31
- 사례 읽기④ : 전통사회 법제에 대한 북한의 해석 _ 39
- 사례 읽기⑤ : 북한의 사상, 종교에 대한 인식 _ 41
- 사례 읽기⑥ :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_ 42
- 사례 읽기⑦ : 민중의 투쟁사 _ 45
- 사례 읽기⑧ : 근현대사 사건의 왜곡 사례 _ 46
- 사례 읽기⑨ : 새터민들의 역사인식 사례 _ 54



I. 시작하는 말



I [시작하는 말]

한 사회의 역사인식이란 그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인식은 세계를 보는 관점이자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된다.

남북한은 수 천 년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여 왔으나 60여년 간의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역사는 각각 상이하게 해석되어 왔으며, 이는 남북간 화해와 공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만경대 소년학생 공전

남북한의 이질화된 역사인식은 문화의 이질화, 가치관의 이질화를 심화시켜 왔다.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여 하나의 역사를 창출하는 과업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통합의 긴 여정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책자에서는 북한의 역사인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분열된 역사인식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분열되어 있는 남북한간 역사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통일한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구축하기 위한 남북한 역사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다.



Ⅱ. 북한 역사관의 특징



Ⅱ [북한 역사관의 특징]

1. 사회주의체제의 역사관 : 유물사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역사인식은 유물론적인 역사관, 즉 유물사관에 따른 역사인식을 기본으로 한다. 유물사관은 마르크스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그는 역사의 원동력을 물질적 생산양식의 발전법칙에서 찾고 있다.

마르크스 유물사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구조와 그 역사적 발전은 경제적 제관계,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유물사관에 따르면,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면 현재의 생산관계와 모순이 발생하고 생산관계는 생산력을 속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과 충돌에 따라 경제구조가 변화하게 되고 그 결과 상부구조는 서서히 또는 급격히 변혁된다고 주장한다.

유물사관은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모순을 일으켜 공산주의로 발전한다는 단선적이고 진보적 역사관을 전개하였다. 유물사관은 계급 없는 공산주의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생산력이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면 경제관계의 모순과 계급투쟁에 의해 자본주의는 소멸되고 무계급의 공산주의사회가 도래한다고 보고 있다.

깊이 보기① : 유물사관의 역사발전 5단계

사회형태	생산력	생산관계	주요 계급
원시공산사회	석기, 사냥, 어업	생산수단의 공유(公有)	무계급
고대 노예사회	금속기, 목축 농업, 수공업	생산수단과 인간의 사유(私有)	노예 소유자와 노예
중세 봉건사회	철기, 조직농업, 수공업 발전	생산수단의 사유와 인간의 제한된 사유(私有)	봉건영주와 농노
근대 자본주의사회	기계시설에 의한 대규모 공업	생산수단만의 사유(私有)	자본가와 무산계급
공산주의사회	제조업과 공업의 고도 발전	생산수단의 공유(公有)	무계급

2. 북한 역사인식의 변화: 유물사관에서 주체사관으로

해방 이후 북한에서의 역사학은 사회주의 역사관인 유물사관을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다. 즉 역사발전과정을 생산력 발전에 의한 사회경제구성체의 합법칙적 교체과정으로 보며 역사발전의 동인을 계급투쟁이라고 파악하였다.

1948년 북한정권이 수립되면서 북한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재편하면서 역사편찬의 원칙과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기본방침은 ‘일본식 사학 및 영향의 잔재’를 일소할 것과 ‘서구학자들의 부르조아적 견해와 편견적 방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것’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성격의 변화에 따른 역사의 체계화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유물사관을 기본으로 하여 체계화된 북한의 역사학은 1950년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유물사관의 주체적 적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1956년 4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를 계기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종파주의와 교조주의가 당 사상사업의 주된 결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혁명운동에 관한 일체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우리 혁명의 역사를 연구 편찬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북한 역사학계의 주요 과제는 역사인식상의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주체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사상개조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관을 수립하고 이를 편찬하여 대중에게 보급하는 일이었다.

이 시기 북한의 역사연구는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혁명전통, 애국주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는 역사편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후 북한 역사학의 목표는 유물사관의 역사법칙이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유물사관을 창조적, 주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와 관련하여 김일성과 그의 가계의 혁명활동에 대한 연구사업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의 역사관도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혁명역사에 의해 새롭게 정리되기에 이른다.

1970년대 주체사상이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정리됨에 따라 북한의 역사인식도 유물론적 해석에서 주체사관에 입각한 역사해석으로 변화하여 갔다.

주체사상에 입각한 주체사관은 역사의 발전동인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로 보고 있다. 물론 주체사관도 여전히 유물사관의 사회발전법칙을 인정하지만, 사회발전을 생산력과



▲ 인민대학습당 내부에 게시된 글

생산관계의 교체과정으로 보거나 혁명투쟁을 계급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에 의한 충돌로만 이해하지는 않았다.

주체사관은 사회와 자연, 인간을 개조하는 모든 투쟁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하여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체사관은 인민대중이 역사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도의 문제란 바로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를 말한다. 즉 수령의 영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역사 발전을 이루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한 역사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서술이 주체사관의 핵심논리였고, 이에 따라 근현대사의 서술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주체사관의 입장에서 김일성의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다룬 현대사 연구는 1980년을 전후하여 마무리된다.

깊이 보기② : 북한의 역사학 연구동향

북한에서의 역사학은 철학, 혁명역사, 경제학, 국가 및 법 이론, 문예학, 언어학과 더불어 사회과학에 속하며 크게 혁명역사와 일반역사로 구별된다. 일반적인 역사학(편사학)은 서술형식에 따라 역사발전의 전시기를 개괄 서술하는 '통사'와 어느 한 시기의 역사만을 서술하는 '단대사'로 나뉘며, 사회의 어느 한 분야의 역사만을 취급하는 '부문사'의 경우 크게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 등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역사학은 당과 사회과학원의 주도 아래 집체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연구집단이 꾸려짐으로써 인접학문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는 사회과학원 산하 력사연구소, 고고학연구소, 민족고전연구소가 있으며 역사학과 관련된 대표적 학회로는 조선력사학회가 있다.



Ⅲ.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와 주요 쟁점



Ⅲ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와 주요 쟁점]

1. 남북한의 역사관 비교

해방 이후 분단으로 인해 상이한 체제를 구축해 온 남북한은 역사관과 역사인식에서도 체제의 차이 만큼이나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역사해석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 역사인식의 경우 이런 차이는 다양성을 넘어서는 심각한 이질화를 드러내고 있다. 역사인식에 있어 이러한 이질화는 어디에서 연유하였는가?

첫째, 북한이 '주체사관'이라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관을 체계화함에 따라 남북한 역사인식에 본질적인 이질화가 초래되었다. 북한은 일찍이 유물사관에 입각한 역사 서술작업을 진행해왔으나, 체제의 변화과정에 따라 역사인식도 주체사관으로 새롭게 정리되기 시작했으며, 유물론적인 합법칙성에서도 이탈하기 시작했다.

둘째, 북한의 역사연구에서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이 박탈되고 당과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복무하게 됨에 따라 역사해석이 정치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즉 주체사상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유일지도체제의 지도이념으로 복무하듯이, 주체사관 역시 수령의 혁명역사를 중심으로 재해석되었으며 유일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진락하였다.

셋째,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중심으로 역사의 진행과정을 재정리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의 혁명적 정통성 조장을 위해 역사를 왜곡, 날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근현대사의 경우 남북의 역사인식은 해석의 차이를 넘어 역사적 사실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관에 의해 재정리된 북한의 역사서 『조선전사』 총 33권이 발간된 1980년대 초반부에 이르러 남북한 역사인식은 심각

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특히 1982년 발간된 『조선전사』 현대사편이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출현과 혁명활동의 개시는 현대사의 서막을 올리는 시초로 된다”고 규정하며 김일성의 ‘트·드동맹’의 결성을 현대사의 시점으로 규정함에 따라 남북한 역사인식은 본질적인 차이가 난다.

이후 북한의 역사해석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기술에서 벗어나 주체사관이 제기하는 나름의 법칙성을 따라 주관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갔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남북한 역사교과서의 서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남한의 역사가관이 과거사실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수령의 혁명역사를 중심으로 한 연역적 역사해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물론 남북한의 역사인식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 경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남한의 민족주의사관이 오늘날 한국 역사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북한의 주체사관 역시 그 성격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좀 더 살펴보면, 남북한 간의 민족주의적 역사관의 발전과정도

사례 읽기① : 남북한 역사교과서 '머리말' 비교

남북한 인식의 차이는 남북한 역사교과서의 서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문으로서 역사학의 의미와 역사학 교육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남북한 중등학교 교과서 『국사』(2002)와 『조선력사』(1996)의 머리말은 다음과 같다.

『국사』	『조선력사』
<p>우리의 역사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이자 기록이다. 과거에 일어난 여러 사실들은 역사가의 평가와 시각에 의하여 역사적 사실로 재발견되고 그 의미가 새롭게 밝혀져 역사책으로 기술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오늘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며 내일을 내다 볼 수 있는 창이기도 하다. 역사 서술은 과거가 어둡다고 하여 숨기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과장해서는 안된다. 역사 서술은 치우침이 없고 엄격하여야 한다.</p>	<p>이 세상에서 조선의 반만년 력사가 빛나고 조선민족이 위대한 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된 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상에서 으뜸가는 참된 인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기 때문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랑찬 민족의 력사를 온 세상에 빛내이며 창조하고 있는 커다란 민족적 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다.</p>



▲ 강서대무덤 벽화

그 성격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남한의 민족주의사관이 그 문호가 넓어지고 다양한 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데 비해 북한의 민족주의사관은 폐쇄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사와 고립되어 왔던 것이다.

2. 남북한의 우리 역사 시대구분

주체사관에 입각한 북한의 시대구분은 유물사관에서 정식화된 원시공동사회-노예제사회-봉건제사회-자본주의사회-사회주의사회로 단계적 발전법칙을 시인하면서도 그러한 사회발전단계는 인민대

중의 지위와 역할이 어떻게 얼마만큼 높아지고 변화·발전했는가 하는데 의하여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발전과정을 시대구분의 중심점에 두고 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은 고대, 중세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근·현대사에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우리 역사 시대구분 비교 *

왕 조	북		남	
	시대	시대 구분	시대 구분	시대
선사시대	원시시대	고대	고대	선사시대
부족국가시대	노예 소유자 사회			부족·삼국시대
삼국시대	봉건사회 성립	중세	중세	고려시대
통일신라	봉건사회 발전			
고려·조선	봉건적 예측 강화			
조선후기 조선말기	자본주의적 관계 발생 봉건제도의 위기			근세
1860~1926	근대사회	근대	근대	대원군 이후~1910
1926	항일무장 투쟁기	현대	현대	1910~
1945	민주건설기			
1950	조국해방 투쟁기			
1953~1980	사회주의 건설기			

* 북한의 『조선전사』(33권)과 남한의 『한국사』(22권) 참조.

북한의 시대구분은 고대를 초기국가 시대(중래의 부족연맹체사회)로 하고 중세(봉건사회)를 고구려로부터 19세기 후반까지로 잡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북한은 현대를 1926년 이후로 삼고 있다.

주체사관에 의해 재정리된 북한의 시대구분이나 역사서술에서 특징적인 것은 근현대사 분야이다. 북한의 근현대사는 주체사관에 의거해 인민대중 투쟁의 시작, 투쟁을 영도해가는 수령의 출현 및 후계자의 계승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근대사는 1860년대 조선인민의 반침략투쟁이 시작된 때부터 3·1 운동까지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1860년대 투쟁 중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의 지도를 맡은 인물로 김일성의 증조부인 김응우를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의 역사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기는 현대사인데, 『조선전사』 33권 중 근대까지는 15권임에 비하여 현대사는 18권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현대사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의 역사 시대구분에 있어서 현대사는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투쟁력사이고 현대력사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위대한 수령의 령도 밑에 참다운 투쟁 강령과 조직을 가지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창조하게 된다” 고 그 의미를 평가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의 출현과 혁명활동의 개시는 현대사의 서막을 올리는 시초로 되게 된다”고 하여 김일성의 ‘ㄷ·ㄷ동맹’ 결성을 현대사의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3·1운동 이후 1926년 김일성의 ‘ㄷ·ㄷ동맹’이 결성되기까지는 부르조아 민족운동으로부터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운동으로 발전해가는 과도기로 상정되었고 그 과정을 주도해 간 인물로 김일성의 부친인 김형직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역사 시대구분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남한 역사학계에 영향을 미쳤으나, 주체사관 성립 이후 학문적 과학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정권의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남한 역사학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물론 근대사회의 출현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현대사의 서술방법이나 방향은 크게 다르게 규정되고 있다.

깊이 보기 ③ : 타도제국주의동맹

북한의 역사는 현대사의 기원을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 동맹'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1926년 화성의숙에 입학하였으나, 그 해 6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사망하자 곧 화성의숙을 그만두었다. 북한의 문헌들은 그의 화성의숙 재학을 1926년 가을까지로 연장시키며 김일성의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국내외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조선통사』(1987)는 '타도제국주의동맹' (ㄷ·ㄷ동맹)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26년 10월 17일 화전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ㄷ·ㄷ)을 결성하는 역사적 모임을 소집하시고 ㄷ·ㄷ의 결성을 선포하였다. (중략)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모임에서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세계에서 공산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ㄷ·ㄷ의 강령으로 제시하였다. (중략)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다.”

3. 남북한 역사해석의 주요 쟁점

1) 민족정통성의 문제

북한의 역사 서술은 특정한 양식의 정통론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고조선-고구려-고려로 이어지는 정통론으로서 북한의 역사서 『조선통사』(상)의 상고사 부분은 고조선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역시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 있다.

북한의 역사서에는 신라의 통일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라의 통일과정은 단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침공에 대한 고구려와 백제인의 투쟁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역사서에서 ‘통일신라’는 ‘후기신라’로 표현되어 있으며 삼국통일기의 역사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정릉사 7층탑(평양 동명왕릉 앞)

고조선-고구려-고려-북한당국으로 이어지는 정통성 구축작업은 1990년대 단군릉 발굴작업 등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례 읽기② : 북한의 왕조사 해석

북한의 역사는 고려의 통일을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국가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의 건국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고려의 건국

“동쪽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 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해 계승되었다. 고려는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대동강 이남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 북쪽에서 이주하여 온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하나의 주권 밑에 통합하였으며 광활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렸다. 고려라는 이름도 고구려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통사』(상), p.186)

● 조선의 건국

“리조 봉건국가는 이성계가 고려왕조를 뒤집어 엮고 정권을 잡게 됨으로서 세워지게 되었다.... 모든 역사적 사실들은 이성계가 우리나라에서 사대주의를 적극 조장시킨 극단적인 사대주의자이며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고구려, 발해의 옛땅을 찾기 위한 룡동원정을 말아먹은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선력사』(고등중학교 교과서, 1999), p.32)

1993년 단군릉 발굴을 계기로 단군은 신화의 영역으로부터 역사의 영역으로 옮겨졌다. 북한은 단군릉 발굴결과를 발표하면서 단군이 5천 11년전에 출생한 실재인물이며 단군의 출생지, 건국지, 고조선의 수도가 모두 평양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례 읽기③ : 단군신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

최근의 북한 역사서(『고조선 역사개관』, 1999)는 신화적 인물에서 실제 역사적 인물로 전환된 단군의 출생에 대해 환웅은 하늘신을 믿던 종족의 공동체 추장을, 웅녀는 곰씨족의 추장 여인을 형상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환웅과 웅녀의 결혼에 대해 곰씨족 추장이 하늘신을 숭배한 종족의 추장과 혼인한 사실을 그린 것인 동시에 이 두 종족들이 종족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1987년 출판된 『조선통사』(상)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당시 『조선통사』는 단군신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통치계급들이 건국시조를 신성화함으로써 자기 왕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꾸며낸 건국신화이다. (중략) 이 신화에서는 왕을 하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로 떠받드는 것과 같은 계급사회 특히 노예제도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 통치계급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중략) 이 신화는 환상적이며 비과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나 우리 민족의 원시공동체사회 말기, 노예사회 초기의 역사와 함께 당시 사회경제형편과 생활, 사람들의 소박한 의식과 관념 등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 단군릉

한편 단군릉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1993년에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이 개건되었다. 즉 고조선의 건국자인 단군과 고구려의 건국자인 동명왕에 대한 강조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비롯하여 고구려, 발해, 고려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모두 평양을 중시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평양을 성지로 부각시키고 민족사의 정통성 계승자로서 북한정권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어 1998년 3월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유역을 고대 인류문명 발상지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이 일대를 '대동강문화'라고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깊이 보기④ : 대동강문화론

대동강을 기반으로 한 고조선문화를 세계 4대 문명과 견주거나 더 앞장섰다고 하는 주장은 199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단군릉 발굴에서 촉발된 고조선 연구의 대전환이 대동강문화론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북한정권 창건 50주년이 되는 1998년 고고학의 50년 역사를 전망하는 글에서 대동강문화는 세계 5대 문명 중 하나로 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북한 고고학계가 이룩한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기에 이른다. 곧이어 대동강문화론 특집호 격인 『조선고고연구』 1999-1호가 발간됨으로써 대동강문화론은 세부내용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자신의 조부인 김형직이 20대 초반인 1916년 10월 단군유골이 발굴된 현장인 단군릉 분향식에 직접 참석해 전국에서 몰려온 각계인사들을 반일 애국사상으로 각성시켰으며, 또한 김형직이 이듬해 4월 이곳을 다시 찾아 ‘단군회’를 조직하고 “단군은 우리 조선을 처음 세운 시조왕이며 단군릉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를 빛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단군릉의 보존·관리를 당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단군을 우리민족의 원시조로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떠받들고 이를 헌법의 서문에까지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단군신화를 역사의 영역으로 복원시킴으로써 북한은 자신들이 고조선, 고구려, 고려의 맥을 잇는 우리 역사의 적자라는 사실과 김정일 정권이 바로 그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했다.

2) '민족' · '민족주의' 개념의 문제

주체사관과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민족에 대한 개념규정을 수정하면서 북한은 민족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깊이 보기⑤ : 사회주의헌법

북한에서의 헌법은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5차 개정 헌법은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김일성헌법'으로 명명되었다. 이 헌법에는 서문이 새로이 규정되었는데, 이 서문에서는 김일성의 업적과 지도력을 집약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북한의 영원한 주석으로 떠받들고 그가 제시한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노동당의 의지가 명문화되어 있다. 개정헌법의 서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

1980년대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스탈린의 민족개념이 유럽의 특수한 개념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족을 이루는 기본 징표는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핏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된다”고 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이념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재정의 되었다.

그러나 ‘주체’와 ‘자주’를 핵심테제로 하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패러다임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북한의 민족주의는 북한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기에 이른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에 대한 선언을 시작으로 하여 1960년대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의 4개 노선으로 확정된 주체사상은 1970년대의 이론체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전일적 사상체계를 형성하였다.

이후 1980년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통해 주체사상이 북한 사회에서 가장 정통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그리고 북한사회의 문화이자 가치관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주체’, ‘자주’, ‘우리식’, ‘민족’의 명제는 사회주의 이념의 본원적 문제인 ‘계급적 관점’과 ‘국제주의적 관점’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민족이 부르조아사회 형성기에 만들어진다는 유물사관의 기본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원형민족주의적 입장에 기초하여 민족의 원초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 개념을 수정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민족주의는 새로이 변모된다. 북한의 공식 담론은 민족주의적 주장들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은 단군릉 발굴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대동강문화론’이라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독선적인 역사관 형성을 가능케 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제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기본적으로 단일혈통, 단일언어, 단일문화를 역사형성의 기초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입장과 일견 유사점을 갖는다.

그러나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상징화되는 북한의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성립되는 북한식 민족주의를 의미한다.

즉 북한의 담론체계에서 민족이란 바로 ‘김일성민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민족의 우수성이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고 선언함으

로써 북한의 민족주의담론은 민족주의가 내포한 윤리성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체제의 절대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북한의 민족 개념의 변화

	1970년	1985년
개념정의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
인용문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입니다. 피줄이 같고 한 영토 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선민족은 한 피줄을 이어받으면서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몇 천년 동안 한 강토우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입니다”
‘주체사상’과의 연관성	없음	민족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나가는 기본단위

깊이 보기 ⑥ : 조선민족제일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는 1986년 7월 김정일의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이후 북한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민족제일주의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여 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의 위대성이란 “수령의 위대성, 당의 위대성, 지도사상의 위대성, 사회제도의 위대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민족제일주의에서 말하는 민족이란 주체형의 사회주의적 민족을 의미한다. 결국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담론은 민족주의가 갖는 체제통합력을 김일성체제 정당화를 위한 논리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3)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

전통사회의 법제에 대한 인식

북한의 역사서는 기본적으로 전통문화를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역사인식은 전통사회의 법과 제도를 “봉건통치배들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계급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 북한의 역사관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간의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룬다고 보고 있으며, 각 시대별 사회제도
 도와 법제 등도 착취계급의 지배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례 읽기④ : 전통사회 법제에 대한 북한의 해석

● 범금 8조

“범금 8조는 고조선에서 노예소유자적 소유형태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범금 8조의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보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부자놈들이 저들에게 항거한 빈민들에게서 곡물을 빼앗아내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조항의 적용은 빈민들을 채무노예로 전락시키는 방법의 하나로도 되었다.(중략)

고대 반동적인 노예소유자들은 인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고 노예사회의 통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반동적인 법률들을 만들어 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조선의 범금 8조이다.”

● 경국대전

“15세기에 편찬된 봉건국가의 기본법인 『경국대전』 가운데서 착취제도를 제정한 「호전」과 억압제도를 규정한 「형전」이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봉건국가의 기능에서 선차적인 것이며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사회의 사상 및 종교에 대한 인식

북한의 역사서는 유물론에 입각하여 전통사상과 종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은 전통사상을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반항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고대국가의 사상과 도덕은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봉건제 사회의 사상과 도덕은 봉건적 지배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종교는 그 본질이 '하나의 미신으로서 지배계급들이 인민들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사상적 도구' 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토대를 둔 북한의 전통문화에 대한 해석은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전통문화를 보는 북한의 입장은 민족문화 유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경우도 역시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민족문화를 생산해낸 인민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따르면 민족문화를 “한 민족의 역사와 전통, 인민의 풍습과 생활감정을 반영한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물질

문화와 정신문화”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을 문화생산의 주체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민족문화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불교문화유적을 기본적으로는 지배계급의 문화라고 비판하면서도 인민들의 창작물로서 그 예술성을 높이 평가

사례 읽기⑤ : 북한의 사상, 종교에 대한 인식

● 불교

“불교는 사람들에게 현실세계는 모두 고통으로 차 있다고 하면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실세계를 버리고 오직 부처를 믿어 정신수양을 하여 이른바 극락세계에 도달하라고 설교하였다.

불교는 미신적이며 허위적인 교리로서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봉건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였다.”

● 유교

“유교는 초자연적인 하늘신을 우주의 최고지배자로 숭배하는 종교적 사상에 기초하여 지배계급의 특권을 절대화한 정치적 견해와 삼강오륜의 반동적 료리관으로 구성된 반동적인 사상체계이다.

유교는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근로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계급적 압박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민족적 의식을 쪼먹고 씹어빠진 봉건윤리도덕을 퍼뜨려 농음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과 고상한 도덕품성의 발전을 백방으로 저해하였다. 특히 유교의 종교적 관념론적 세계관은 조선에서의 유물론적인 철학사상의 발전을 방해하였으며 과학문화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었다.”

하고 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의 주체를 인민과 집현전 학자들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세종대왕의 치적으로 평가하는 남한의 문화사 해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사례 읽기⑥ :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 불교문화유적

“지배계급이 불교문화를 퍼뜨린 것은 예술에 대한 인간의 애착을 이용하여 불교의 교리를 침투시켜 사람들을 기만하려는데 있었다. (중략)

인민출신의 예술가들은 통치계급의 강요에 의하여 종교예술품을 만들었지만 자기들의 지향을 일정하게 그 창작품들에 반영시키게 되었다. 같은 종교예술이면서도 조선의 것이 다른 나라의 것과 구별되는 뚜렷한 예술적 특색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훈민정음 창제

“이미 삼국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사용하여 오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중략) 훈민정음을 만든 학자들은 글자는 반드시 그 말의 특성에 맞아야하고 말의 음운체계를 옳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과학적인 이론을 내놓고 그것을 글자창제에 구현하였다.”

전통문화에 대한 남북간 인식 비교

	남한	북한
법금 8조	<p>이 법을 보면 고조선사회는 사람들의 생명(노동력)과 재산을 중시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힘썼음을 알 수 있다. ※ 『국사』(중학교과서)</p>	<p>법금 8조는 고조선에서 노예소유자적 소유형태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조선통사』(상)</p>
불교	<p>불교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의 사상체계로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결과 이 시대의 불교에 호국적 성격이 강한 것은 정한 이치였다. ※ 『한국사신문』</p>	<p>불교는 미신적이며 허위적인 교리로서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봉건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였다. ※ 『조선통사』(상)</p>
경국대전	<p>경국대전은 조선을 다스리는데 기본이 되는 법전으로서 이 책의 편찬은 곧 새 왕조의 통치조직 정비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국사』</p>	<p>15세기에 편찬된 봉건국가의 기본법인 『경국대전』 가운데서 착취제도를 제정한 「호전」과 억압제도를 규정한 「형전」이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봉건 국가의 기능에서 선차적인 것이며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조선통사』(상)</p>
훈민정음 창제	<p>세종은 일부 유학자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집현전의 성삼문, 정인지, 신숙주 등 학자들을 동원해서 민족 최대의 문화적 창조물인 한글을 창제 반포하였다. ※ 『한국사신문』</p>	<p>이미 삼국시기부터 리두문자를 사용하여 오던 우리 인민은 1444년에 가장 발전된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조선통사』(상)</p>

	남한	북한
유교	<p>유교는 우리 국민의 윤리관이나 덕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국가나 사회유지의 운영원리인 동시에 인간의 도리를 표시한 실천규범으로서 충효사상을 일깨워 주었다. ※ 『한국전통사회와 역사인식』</p>	<p>유교의 종교적 관념론적 세계관은 조선에서의 유물론적인 철학사상의 발전을 방해하였으며 과학문화 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었다. ※ 『조선통사』(상)</p>

4) 역사적 사건 및 인물에 대한 평가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해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각각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의 역사해석은 유물론적 역사해석의 기본적 속성에 따라 계급론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고 있으며 민중의 투쟁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역사발전의 동인을 계급간의 투쟁으로 보았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서술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역사교육의 목적이 ‘충직한 주체형 공산주의 혁명가의 양성’에 있기 때문에 인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반면, 왕의 업적이나 지배계급의 업적은 은폐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근현대사는 김일성의 혁명역사 중심으로 역사가 서술되어 있으며 당시의 역사적 사건들도 김일성 가계를 중심으로 조작되어 있다.

1886년의 서면호사건은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의 업적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3·1 운동 또한 김일성과 그의 아버지 김형직을 중심으로 왜곡, 서술되고 있다.

사례 읽기⑦ : 민중의 투쟁사

● 함경도 농민전쟁 (이시애의 난)

“지금으로부터 530여년전 함경도 지방에서는 리시애의 지휘 밑에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준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리시애의 반란은 서울 량반들에 대한 함경도 지방 량반들의 쌓이고 쌓인 불만의 폭발이었다. 리시애의 반란 소식이 함경도 여러 고을에 알려지자 이 지방의 수많은 농민들도 투쟁에 일어섰다. 그것은 이란 리통에 농민들을 못살게 구는 량반지주 특히, 서울에서 내려온 놈들을 복수하자는 것이었다.”

● 흥경래 농민폭동 (흥경래의 난)

“1811년에 평안도 지방에서는 흥경래의 지휘 밑에 큰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지방 인민들은 다른 지방 인민들보다 리조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원한이 더 높았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서울의 봉건통치배들이 이 지방 사람들을 더 천대하고 악착하게 착취하였기 때문이었다.”

사례 읽기⑧ : 근현대사 사건의 왜곡 사례

● 서만호 사건

“지금으로부터 백수십여년전인 1866년 미제침략군이 군함 사만호를 끌고 우리나라에 기여들었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께서 서 계시었다. 남달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시었던 김응우선생님께서서는 미국 침략선 사만호가 대동강에 기여들자 인차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싸움 마당에 떨쳐나서게 하시었다.”

● 3·1 인민봉기

“1919년 3월 1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조선독립만세!’의 구호를 소리높이 외치면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전민족적 투쟁을 전개한 날이며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준 날이다.... 그 때 여섯 살이시던 어린신 대원수님께서서는 시위대렬에 참가하시어 보통문 앞까지 가시었다. 어른들의 걸음을 미처 따라 잡을 수 없었던 대원수님께서서는 짚신을 벗어 드시고 땀 박질로 대렬을 따라가시었다.... 3·1 인민봉기는 인민들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위대한 수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남북한 역사적 사건명의 차이

남한	북한
이시애의 난	함경도 농민전쟁
망이, 망소이 난	공주 농민군의 투쟁
홍경래의 난	평안도 농민전쟁
임진왜란	임진 조국전쟁
갑신정변	1884년 부르조아 개혁
갑오개혁	갑오개혁, 1894년 부르조아 개혁
동학농민운동	갑오농민전쟁
3·1 운동	3·1 인민봉기
광복	조국의 해방
6·25 전쟁(한국전쟁)	조국해방전쟁



IV. 남북 역사학 교류와 통일역사교육의 문제



IV [남북 역사학 교류와 통일역사교육의 문제]

1. 남북한 역사학의 교류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협력 중에서 학술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 분야의 학술교류는 고구려 및 고대사 관련 학술회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93.8.11~14, 중국 집안),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97.7.20~21, 일본 도쿄),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원시 고대문명의 재검

토 학술회의'(95.8.4~6, 일본 오사카) 등이 있다.

2000년에 들어서는 '조선장학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고대사학자들의 합동심포지엄(2000.11.24, 도쿄)이 열려 북한 사회과학원 소속 고고학연구소, 력사연구소의 학자와 남한 측의 역사학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2000년 6월에는 북한이 출판한 「조선유적유물도감」의 판권을 서울대출판부가 사들여 총 20권 중 고구려, 고려, 민속편을 재편집하여 5권을 출간하는 등 학술교류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남북한이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은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에 대처하고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고구려유적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한민족의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고구려 문화유산 보존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2월에는 유네스코 신탁기금으로 평양에서 열린 고구려벽화 보존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에 대하여 남북한의 역사학계는 한 목소리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있다. 2004년 9월 '한국사 속



▲ 인민대학습당(평양)

의 고구려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측 역사학자 4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여기서 북측 역사학자 조희승은 고구려 사람들의 전투방식과 생활풍습 등이 유목민인 몽골족과 만주족의 그것과 같지 않으며, 생활풍습 또한 한족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고구려 역사의 독자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남북한 역사학자들은 '일본해 표기의 부당성에 관한 남북토론회'와 '일제의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자료전시회'를 각각 열고 약탈문화재 반환과 동해의 바른 표기를 일본에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2004. 2. 25, 평양)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재는 남북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최근 남북의 역사학자들은 주변국들의 한반도 역사왜곡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참여하게 대두된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 훼손문제를 남북 공동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해 한민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남북 역사학계의 교류를 통해 볼 때 통합의 가능성보다는 이질화의 심각성을 깨닫는데 더 큰 의미가 주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간 역사학계의 학술교류는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민족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통일역사교육의 과제

분단으로 이질화된 남북간의 역사인식 차이는 민족통합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체사관에 의해 해석된 북한의 역사인식은 민족사의 올바른 발전을 왜곡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민족의 반쪽인 북한 주민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왜곡된 역사관을 학습해 왔으며,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례 읽기⑨ : 새터민들의 역사인식 사례

● 세종대왕

- 북쪽에서 역사시간에 들은 것 같다. 왕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다.
- 한글을 만든 사람이 아닌가요? 한글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 남한에 와서 남쪽 역사책에서 배웠다.

● 성삼문

-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 훈민정음 창시자 중 한 명, 사육신 중 한 명.
- 북쪽에서 목화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했다.

● 정인지

- 역사책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른다.
- 훈민정음 창시자 중 한 사람, 사육신 중 한 사람.

● 집현전

- 들어 본 일이 없다.
- 하나원에서인가 들어 봤다.
- 세종대왕 시대 한글을 창시한 모임.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생활에 나타나는 북한언어정책의 영향』,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3, pp.65-70 참조)

통일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남한사회에 들어와 있는 새터민들의 적응과정에서도 그들이 북한사회에서 교육받은 역사가관이 큰 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란 우리민족의 정체성의 기반이며,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그러한 역사인식에 영향을 받는다. 주체사관에 따라 해석된 역사를 그들의 역사인식으로 내면화한 북한의 주민들이 겪을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은 그들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 정체성의 혼란은 결국 통일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한 통일역사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의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북한주민들은 다소 균형 잡히지 않은 역사교육을 받아왔다. 북한의 역사서술은 근현대사에 비해 고중세사 부분이 취약하며 이 시기의 역사지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역사교과서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왕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술이라

는 측면도 있지만, 김일성 일가를 제외한 특정인물의 부각을 봉쇄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왕 또는 양반 관료들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매우 취약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새터민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통일과정에서 통합될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역사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우선 남북한 역사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민족통합을 위한 역사관 재정립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하나의 역사를 공유한 하나의 민족이라는 너무도 단순한 사실과 함께 그러한 하나의 역사가 두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인식의 '다름'과 관련하여서는 '다양성'의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측면과 '왜곡' 또는 '역사 날조'의 측면을 엄격히 판별하여 후자의 경우 그 오류를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그 다음으로는 북한 역사교육의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 역사서술체계의 특성 및 해석의 차이들이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를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역사서술체계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합법칙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서술되어 왔음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통일역사교육을 위한 체계적 교육방법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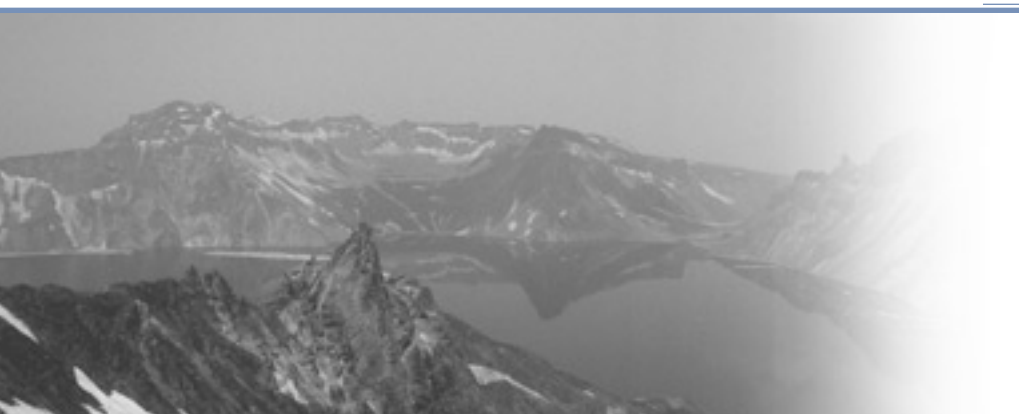
장기간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아온 새터민들과 북한주민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그들의 정치이념과 혁명역사 등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해 왔으며, 북한 체제가 요구하는 관념들을 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주입해 왔다.

따라서 남한사회도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하나의 역사를 위한 노력



V [하나의 역사를 위한 노력]

한반도에서 통일과정은 민족통합을 통한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분단 60여 년간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내적 통합을 이루며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민족동질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많은 영역에서 이질화가 초래됐다.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나 남북한 양 사회에서 그 역사는 다르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렇게 이질화된 역사인식은 양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을 이질화시키는데도 일조해 왔다.

한 민족의 동질성이란 같은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의식을 공유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 있어서도 한 민족 고유의 보편적 가치들에 근거한 공동인식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민족공동체 형성은 구성원들이 민족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민족의식과 동질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역사를 만드는 작업은 단일한 민족국가 수립의 선결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특히 주체사관에 의해 왜곡된 북한의 역사인식은 남북한 역사통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족통합과 민족공동체의 형성이라는 민족사적 과업을 위해 우리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역사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역사학을 상호 긍정적으로 결합하려는 노력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 역사학이 정치제도사 위주의 지배층 역사에 치중한 반면, 북한 역사학은 일반사회 생활전반의 피지배층 역사에 주목하

여 왔으며, 또한 기술사, 문화사 등 부문사 분야에 많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바로 이 점에서 북한 역사서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여 통일역사학 발전을 풍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남북간의 민족통합을 위한 노력들은 상징적 단계를 넘어 우리민족의 보존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대처해 나가는 단계로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민족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간 서로 새롭게 형성해 놓은 가치와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존중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민족이 21세기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오영, “단군릉사건과 대동강문화론의 전개,” 『북한의 역사만들기』.
- 김보영, “북한의 역사연구자 양성과정과 연구자 활동 상황,” 『북한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 『김정일 선집』 제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도면희, “북한의 한국사 시대구분론,” 『북한의 역사만들기』, 푸른역사, 2003.
- 『고조선력사개관』, 사회과학출판사편, 1999, (도서출판 중심, 2001 재간행)
-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1985.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시리즈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2003. 12)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2004. 8)
03.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2005. 2)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2005. 3)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2005. 6)
06. 남북관계발전의 법적 이해 (2005. 6)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07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 인쇄일 2005년 9월 5일
- 발행일 2005년 9월 12일
-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60~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 디자인 / 인쇄 다해미디어 전화 02-719-7123

〈비매품〉